

Part 7 신랑이신 왕의 아름다우심 (계 19:11-21) (The Beauty of the Bridegroom King)

I.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아름다우심

- A.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재림 때에 모든 열방들 앞에서 크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묵상해볼 때, 우리는 그 일들의 이면에 있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사야보다 더 많은 것을 밝힌 사람은 없다(사 4:2; 24:14; 28:5; 33:17).

2 그 날에 여호와와 짝(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17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 (사 33:17)

17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 (한글 KJV, 사 33:17)

- B. 예수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일하심에서, 그분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사 45:1-8; 계 19:11-21). 아버지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계신다(사 45:17; 히 1:8). 성령께서는 지금 이 주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

2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와 은혜(권능)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3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사 45:2-4)

- C.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초림 때에 밝혀졌다. 믿음이 있는 소수만이 그것을 목격했다(요 1:10-11).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기 같아서 고운 모양(아름다우심)도 없고 풍채(위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2)

- D. 계시록 19:11-21절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미래의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12가지 측면들을 조명하셨다.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의 증거는 더 명확한 그림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수천가지 다른 부분이 강조될 수 있음에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열심 중에서 의도적으로 12가지를 강조하셨다.

1. 성령께서는 계시록 19:11-16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의 8가지 측면들을 조명하신다.

그분의 오시는 방법(11절) : 백마를 타고 오심(또한 구름을 타고 오심, 마 24:30).

그분의 성품(11-12절) : 신실하며, 참되시며, 의로우시며, 열심히 있으심.

그분의 행하심(11,15절) : 심판하시며, 전쟁에 임하시며, 검으로 열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

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심.

그분의 눈(12절) :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심, 사랑과 열정의 감정, 그 눈의 바라보심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으실 수 있으심(살후 2:8).

그분의 면류관들(12절) : 과거와 미래의 그분의 승리를 나타냄.

그분의 이름들(12,13,16절) :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왕 중의 왕.

그분의 의복(13,16절) : 피가 튀어 있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에 쓰여 있음.

그분의 군대들(14절) : 그분과 함께 있는 군대, 그분의 백성들과 동역하기 원하심을 보여줌.

2. 성령께서는 계시록 19:17-21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4가지 측면들을 조명하신다.

새들이 모임 : 큰 잔치를 위해(계 19:17-18; 눅 17:37; 겔 39:17).

왕들이 모임 : 그들의 군대와 함께(계 19:19; 욥 3:2,12; 슥 14:2; 습 3:8).

적그리스도가 패망함 : 모든 열방 앞에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패망함(계 19:20).

새들이 마무리함 : 열국으로부터 온 군대들의 시체를 먹음(계 19:21).

II.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때의 예루살렘 주변 상황 (계 19:11-21)

A.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에돔(오늘날의 요르단, 사 62:6-63:1)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면서 역사상 마지막 전투를 승리하시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해두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예루살렘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시는(마 19:28; 25:31; 렘 3:17) 왕이신 메시아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마 23:39; 시 24:7-10).

B. 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에서 이 큰 전쟁 바로 전에 일어난 마지막 일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일이며 (계 16:21), 이는 일곱째 나팔에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후(계 11:15)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외부로부터 이 전쟁을 향해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계 19:11-21). 삼입 구절(계 17:1-19:10)에서는 일곱째 대접에서의 바벨론의 멸망과(계 16:19), 혼인 잔치와,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부분이 묘사되어 있다.

C.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계 19:11),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이는 이 마지막 전쟁(욥 3:2,12; 슥 12:3; 14:2; 습 3:8; 겔 38:4; 39:2; 계 16:14)에 대해 밝히고 있다.

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엡 6:16)

1. **백마** : 그분은 백마를 타고 이동하시며, 구름과 함께 이동하신다(마 24:30).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왕의 입성을 하실 것이다.

2. **심판하며** : 그분은 열방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평가하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그분은 빈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판단을 하시며(사 11:4), 법과 정책을 세우실 것이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4)

Part 7 신랑이신 왕의 아름다우심

3. **싸우더라** :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계 8-9장, 16장)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열방의 통치권자들을 없애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격렬하게 행하시는 이러한 극단의 개입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충신과 진실이라** : 그분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심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의로우심).

D. 예수님의 눈, 많은 면류관, 그분 밖에 모르는 이름(계 19:12).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2)

1. **그 눈이 불꽃 같고** :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꿰뚫는 직관력이 있으시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사랑하심과 열정을 드러내며, 그분의 바라보심으로 능력이 부어진다(살후 2:8).
2. **많은 면류관** : 이는 그분의 과거와 미래의 승리들을 나타내며, 그분의 승리하시는 리더십을 나타낸다. 여기서 쓰인 면류관은 *diadem*으로써 통치권자의 면류관을 나타내며, 승리자의 화관을 나타내는 *stephanos*와는 다르다.
3.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실 것이다. 그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은(12,13,16절) 예루살렘 전투 가운데 드러난다.

E. 그분의 의복이 대적들의 피로 물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계 19:13).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 19:13)

1. **피 뿌린 옷(한글 KJV : 피에 적신 옷)** : 예수님의 긴 외투에 해당하는 옷은 대적들의 피로 더럽혀질 것이다. 여기서 적셔졌다는 단어는 그리스어 *baptō*에서 온 것으로, 이 단어로부터 baptize(세례, 침례) 단어가 나왔다. 여기서 적셔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피에 잠겨있어서 흠뻑 젖어버린 것을 말한다. 이 일은 에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분의 행진에서 일어난다(사 63:1-3).

1 에돔(오늘날의 요르단)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며 3 ...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사 63:1-3)

2. **하나님의 말씀**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전투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F.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열방을 정복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계 19:14).

Part 7 신랑이신 왕의 아름다우심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4)

1. **군대들** :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부활한 성도들과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슥 14:5; 살전 3:13; 4:13-17; 계 17:14).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이다.
2. **그를 따르더라** :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분이 이 시기에 이동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3. **희고 깨끗한** : 의복이 “희다”는 것은 빛나고 있음(8절)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초자연적인 부분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시 104:2; 마 17:2). 또한 희다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한다. 신부가 사랑과 순결 가운데 걸어 나온 삶은 신부의 의복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평가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마 16:27; 계 11:18; 22:12).

8 그(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8)

G. 예수님께서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일하심에는, 그들을 그분의 입의 검으로 치시는 일과, 그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진노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계 19:15).

14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 19:14)

1. **만국을 치겠고** :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명령으로, 그분의 종말론적 심판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4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4)

2.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 이 부분은 마지막 전투를 설명하는 19-21절에 나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단숨에 세상의 모든 정부와 통치자들을 교체하실 것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동시에 한 도시에 모이게 되는 역사상 유일한 타이밍이다.

H.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계 가운데 왕 중의 왕(만왕의 왕)으로서 인식되실 것이다(계 19:16).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이를 굳게 지켜나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은 다른 어떤 누구로도 교체되지 않으시며, 이를 그만두지도 않으시며, 이를 굳게 지켜나가실 것이다.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6)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슥 14:9)

III. 성령님께서서는 계 19:17-21절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4가지 부분을 조명하신다.

A. 새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로 잔치를 하는 큰 만찬에 모이게 될 것이다(계 19:17-18).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계 19:17-18)

- 1. **모든 새** : 이때에는 초자연적으로 새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는 현재 2천억이 넘는 새들이 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들의 시체들로 새들이 배불리 먹을 것에 대한 초청이다(21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새들이 모이는 일에서 독수리를 부각시키셨다(마 24:28; 눅 17:37).
- 2. **잔치** : 에스겔은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사(meal)로 지칭하며 예언했다(겔 39:17-29).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혼인 잔치(계 19:7,9)와 대조된다. 이 일들은 온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게 되는 동일한 실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다.

17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표준새번역 : 희생 제물)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표준새번역 : 희생 제물)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39:17-20)

B. 왕들은 그들의 군대와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계 19:19; 올 3:2,12; 속 14:2; 습 3:8).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19)

C. 적그리스도는 거짓 예언자와 함께 모든 열방 앞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계 19:20).

20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 (계 19:20)

D. 새들은 죽은 군대들의 시체들을 깨끗이 치워버릴 것이다(계 19:21). 새들은 수백만의 죽은 군대들의 살들을 먹을 것이며, 이로 인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 시체들로 인한 질병이 없을 것이다.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 19:21)

21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겔 39:21-22)

